자연으로 가는길…천년의 쉼터 '지리산 정원'

'야생화 생태공원' '산림휴양타운' 조성…산림복합휴양 공간
'구례 수목원' 1148종 식물 식재…고택 쌍산재 '핫플레이스'

지리산과 섬진강은 구례 역사와 문화의 모태(母胎)다. 그중에서도 지리산 국립공원은 전체가 하나의 자연 정원이라고 할 만큼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례 수목원'과 '지리산 정원', '구례 산수유 자연휴양림'이 대표적으로 어딜 가나 산림체험과 휴양을 즐길 수 있다.

전남도 공립수목원 제1호로 지정된 구례 수목원은 지난해 5월 새롭게 개관했다. 산동면 탑정리 산 92-4번지 일원 54ha(조성면적 7.1ha)에 자리하고 있다. 구례군은 수목원내에 1148종 13만본의 식물을 식재했다. 특히 목련(39종), 수국(93종), 비비추(69종), 붓꽃(39종), 단풍나무(13종), 층층나무(12종) 등을 수목원내 특화식물로 식재해 지리산 야생화와 어우러지도록 했다. 수목원은 봄향기원, 진달래원, 계류생태원, 테라피원(숲속 그늘마당), 서어나무원, 지리산종보존원, 겨울정원 등 11개의 주제정원으로 구분돼 있다.

구례 수목원과 지리산 정원은 찻길로 이어져 있다. 지리산줄기인 간미봉(해발 728.4m)과 지초봉(해발 601m)을 잇는 능선을 기준으로 구례 수목원은 북쪽면, 지리산 정원은 남쪽 면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 정원은 총 281ha 규모로 크게 '야생화 생태공원'과 '산림휴양타운'으로 나뉜다. '야생화 생태공원'은 야생화 테마랜드와 지리산 자생식물원, 구례 생태숲, 숲속수목가옥, '산림휴양타운'은 숲속휴랜드와 유아숲 체험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최초의 숲정원 조성을 위해 2023년까지 별빛숲정원, 어울림정원, 하늘정원, 와일드정원, 프라이빗정원 등 5개 주제 정원을 추진 중이어서 지리산 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힐링 치유의 정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에 위치한 고택 쌍산재(전남도 민간정원 제5호)는 구례를 찾는 여행자들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했다.

한옥 숙소로 알음알음 소문난 이 집은 tvN 예능 프로그램 '윤스테이' 촬영으로 전국적 명소가 됐다. 쌍산재는 단순한 한옥 숙소가 아니라 잘 가꾼 정원이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섬세한 손길이 느껴진다. 채우지 않은 공간마저 멋스러운 비결이다.

입구의 관리동을 지나면 바로 대나무와 차나무가 빼곡한 오솔길이 이어지고, 길을 통과하면 드넓은 잔디밭이 나타난다. 돌담 주변에 산수유와 매화가 화사하고 히어리와 천리향 향기가 은은하다. 푸르름을 맞이한다는 영벽문(映碧門)을 열면 작은 저수지가 봄빛을 가득 머금고 있다. 투숙객이 아니어도 정원을 둘러볼 수 있다.

입장료(1만원)에 차 한 잔이 포함돼 있다. 고택 마루에서 한옥의 멋과 함께 그윽하게 망중한을 즐길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다.

대나무숲 입구 왼쪽에 위치한 별채에 앉으면 초록색이 가득 눈에 찬다. 별채에서 대나무 숲을 지나 호서정으로 오르는 돌계단 오솔길은 사진 포인트다. 하늘로 죽죽 뻗은 대숲과 한옥지붕이 서정적이다.

이 밖에도 '섬진강 대숲길'(구례읍 원방리 1)은 섬진강과 대나무 숲이 어우러진 생태 탐방로이다. 구례읍 오봉마을 섬진강변에 대나무숲이 조성된 까닭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의 사금 채취와 연관돼 있다. 이로 인해 강변이 마구 파헤쳐져 황폐화되자 마을 주민 김수곤 씨가 대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한다.

80여년이 흐른 지금, 대숲은 주민과 여행자를 위한 힐링 생태탐방로로 탈바꿈했다. 대나무 숲이 강변 평지에 조성돼 있어 걷기에 편하다. 대숲길에서 눈을 조금만 돌리면 하늘 빛깔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푸른 섬진강물과 멀리 사성암이 자리한 오산이 보인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리산 정원과 찻길로 이어진 구례 수목원 숲길에 푸르름이 한창이다.

넉넉한 전라도 손맛 그대로…건강한 한상 '산채정식'

지리산에서 나는 알차고 훌륭한 각종 버섯, 나물류로 만들어지는 구례 '산채정식'은 건강한 맛은 물론 보기에도 좋아 지리산 먹거리 중에 단연 최고다. 넉넉한 인심과 함께 전라도의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지역 대표 음식이다.

여기에 송이와 표고, 고사리, 두릅, 더덕 등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된 산채들은 그 하나하나가 지리산의 맛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산세가 깊고 물이 맑은 지리산에서 따낸 여러 종류의 산나물들은 더할 나위 없는 천연 식품으로 그 맛도 영양도 열 신선 부럽지 않을 기쁨을 선사한다.

구례 산채정식은 싸리버섯, 산초나물, 곰취, 더덕, 머루대, 순나물, 취나물, 고들빼기 등 계절마다 다양한 30여 가지 나물들로 구성된다. 여기에 묵은지 김치찌개와 짭조름한 생선, 알록달록 전,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곁들여져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한 반찬가지 수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식당마다 조금씩 다른 재료와 손맛도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제철 나물을 데치고 찬물에 깨끗하게 헹군 후 갖은 양념을 넣고 버무려내는데 신기에 가까울 정도다. 귀하다는 더덕을 양념에 버무린 뒤 익혀주면 맛은 물론이고 화려한 비주얼에 '엄지척'이 절로 들어진다.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하는 밥상에 손님들도 봄에 취해간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신선한 나물에 환절기에 잠시 집나간 입맛도 되돌아 올 것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